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1월(제87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가나와 라오스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 주세요

JICA 해외협력대 가나·라오스 파견 오이타현



사토 도모타카
(파견 국가: 가나)



미야와키 요시카즈
(파견 국가: 라오스)

JICA 해외협력대가 파견 전 인사차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심의감을 예방했습니다. 오이타현에서는 사토 도모타카(佐藤 智隆) 씨와 미야와키 요시카즈(宮脇 好和) 씨가 각각 청년 해외협력대, 시니어 해외협력대로 선발되었습니다. 사토 씨는 가나 공화국에 파견되어 현직과 관련된 자동차용 에어컨 설계 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현지의 기술 학교에서 냉장, 공기 순환 기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야와키 씨는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라오스)에 파견되어 사회 교육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루앙 프라방 국립 박물관 학예사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두 분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투르 드 규슈' 히타서 열린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 우스키시 관광 이벤트 '석불 파마'...석단의 런웨이
- 현립미술관, 축공예 전시 '다케에' 개최...워크숍 진행
- 벳푸 팔탕 홍보 대사 인정 제도 개시...모니터링단 모집
- 벳푸시 이슬람교 모스크 일반 공개...견학·강연 열려
- 예술 문화 단기 대학, 지적 재산 학습 애니메이션 제작
- 오이타현청, 이카타 원전 사고 가정 대피 훈련 시행
- 히메시마촌, 올해도 왕나비 도래...관광객 발길 이어져
-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 GT 관계자, 오이타현청 예방

바다 내음 가득한 쓰쿠미에 놀러 오세요!

쓰쿠미시 관광 정보 쓰쿠미시



쓰쿠미 이루카지마
(うみたま体験パーク つくみイルカ島)

돌고래 퍼포먼스를 보고, 보트를 타고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 국내 유일 '푸싱' 기술에 도전!

- 주소: 津久見市大字四浦2218-10(〒879-2683)
- 문의 전화: 0972-85-3020(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10:00~16:00(휴관일 있음)
- 입장료: 성인 800엔 / 소인(초,중학생) 650엔



호토지마 섬
(保戸島)

'미래에 남기고 싶은 어촌 마을 역사 문화 재산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경관. 미로 같은 골목 길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자.



후가동 돛밥
(ひゅうが丼やばはく)

옛날 배를 타던 호토지마 섬 어부가 만든 음식. 달콤하고 고소한 양념에 버무린 신선한 참치를 뜨거운 밥 위에 올려 한 입에 꿀꺽!



분고수도 가와즈 벚꽃 축제
(四浦半島 豊後水道河津桜まつり)

2~3월에는 5천여 그루의 가와즈 벚꽃이 꽃을 피우며 현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 쓰쿠미 특산품인 굴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자!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1월(제87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32화

기사예요 지난달, 국제정책과 3인방이 한국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오이타를 잇는 제주항공을 타고 약 한시간 반을 날아가 도착한 10월의 서울은



많이 추울까 걱정했지만 11월 말의 오이타와 비슷해서 딱 좋았어요.



출장으로 갔으니 당연하지만 열심히 일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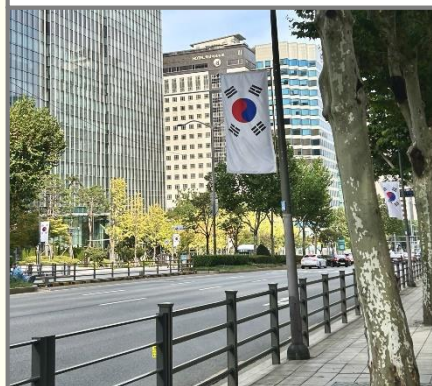
로컬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힘을 냅니다!



노지가 나들 동안 서울에서 어떤 것을 취재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왓츠업, 오이타!' 한국어판 11월호, 일본어판 12월호 기사를 기대해 주세요!



여기 때문에 간 한국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오랜만~)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1월(제87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4년 만에 부활한 국제선을 타고 한국으로 떠나요!

제주항공 직항편 이용 후기 오이타현

지난 6월 22일, 제주항공이 오이타와 한국 서울(인천)을 잇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약 4년 만에 오이타 공항의 국제선이 부활했다. 현재 주 3회 운항(화, 목, 토) 중인 해당 노선은 취항 당일에 거의 만석을 기록했으며 평균 탑승률 80%를 보이고 있는데,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늘어날 탑승객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주 5회(월, 화, 목, 금, 토) 운항으



로 증편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업무차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어 취항 4개월 만에 나도 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이번 기사에서 그 후기를 전하고자 한다. (※해당 노선으로 편하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어떤 관광지를 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분을 위해 오른쪽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추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 2시간 만에(※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오이타에서 바로 한

서울에 오면 여기도 가 보세요!



서울특별시
마스코트 캐릭터
해지

① 명동 성당 明大聖堂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한국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한국 가톨릭의 대표 성지이자 최초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② 인사동 거리 仁寺洞通り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9

화랑, 전통 공예점, 고미술점, 전통 찻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

③ 세종대왕 동상 世宗大王銅像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발명품 모형도 함께 설치.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1월(제87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국에 갈 수 있는 직항편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오이타 생활을 하며 한국에 귀국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늘 가장 가까운 오이타 공항을 뒤편한 채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긴 시간 이동을 하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던 나에게 오이타 취항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실제로 직접 이용해 보니 공항까지 이동하는 게 정말 편하고 가까워서 감동을 받았다... 또한,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관문인 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있었는데 그걸 보니 새삼 직항편 취항을 실감했고 오래오래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맑은 날씨 속 안전하게 오이타 공항에 도착해 게이트를 빠져나오니 익숙한 '오케 짱(나무 옥조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보자 나도 모르게 안도감에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주 5회 운항이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이타와 서울을 찾게 될 텐데, 서로 다른 나라·지역의 문화 차이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제주항공과 함께 말이다!



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가려면 멀리 가야 한다'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해당 노선이 있어 더욱 많은 오이타현민 여러분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

한국 출장이 끝나고 오이타에 돌아가기 위해 찾은 인천 공항의 탑승 수속 카운터는 이른 아침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많은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전반적인 수속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탑승구로 가는 길 곳곳에는 '목적지: 오이타'라고 쓰인 안내 전광판이



🇰🇷 제주항공 운항 스케줄 🐣

2023년 6월 22일~
주 3회 운항
(화, 목, 토)



2024년 1월 12일~
주 5회 운항
(월, 화, 목, 금, 토)

서울→오이타 (7C1508) 10:50~12:45
오이타→서울 (7C1507) 14:10~16:15